

만남

01

2021

통권 563호

신년특집

눈을 들어 받을 보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yn_nextgen
영락교회

Instagram



#위로챌린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탄의 계절을 맞아 이 땅의 참된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우리 교회는 '위로챌린지'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대림절 기간 중 열린 이번 행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수고하고 힘들어한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 감사의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20초 이내 분량의 위로 영상을 촬영하여 지정된 교회 이메일 주소로 제출했으며, 제출된 영상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함으로써 성도들이 영상에 담긴 격려와 감사의 의미를 함께 공유했다. 첫 번째 참가자였던 김운성 목사를 필두로 교역자에서부터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영락 성도들이 참여한 이번 '위로챌린지'는 격려와 위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전하는 기회가 됐다.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발을 보라
(요한복음 4:35)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2021년, 광야를 각오합시다 김운성

신년특집 04 눈을 들어 발을 보라 김운성
06 새해에는 성경 통독 달립시다 황광용
08 교회학교는 세상이 갖지 못한 복음이 목표 노대웅
10 이웃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로 홍정호

영락칼럼 12 가정은 우리 신앙의 근원입니다 강승훈
15 언택트의 방향은 인간의 만남 이준영
18 가난조차 행복하게 하는 믿음 손성현

다음 세대 20 겸손히 주님을 구합니다 이학주
22 통합 온라인 주말학교로 새 가능성을 봅니다 신주현
24 성경 들려주고 상상력 키워요 유엘리사
26 면접준비 1호는 '웃어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30 길위의교회 사람들 이야기 정용준
33 비대면 전도훈련을 마치고 이정순
36 탈북 청소년들 믿음과 꿈이 자랍니다 김영미

영락의 울타리 38 주님을 갈망할 때 깊어지는 교제 전병주
40 말씀 묵상으로 거듭난 소망 김이분
41 포토에세이 _ 설화(雪花) 이미혜
42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출발 권기용
44 예방접종과 면역 임대현
46 이름없는 수고와 넘치는 은혜 이성환
48 효(孝)와 교회 공동체 이현웅·문호선

야곱의 우물가 50 나의 생활을 찬양으로 김현성
52 호산나와 함께하신 은혜 장세완

문화광장 55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김정희
56 2020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57 구명 난 복음, 완전하신 주님 이기훈
60 한경직 목사의 눈물, 외다리 그 소녀 김영미
64 빛으로(근원 - 하모니) 박은숙

교회소식 65 교회창립 75주년 행사 외
68 이임교역자 / 은퇴항존직 / 임직자 명단
71 1월 목회력
72 편집장 레터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2021년 교회표어인 '눈을 들어 발을 보라' (요 4:35)를 묵상하면서 담겨진 의미를 살리고자 했다. 농부들이 들판을 바라보며 새해의 소망을 염원하는 내용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했다.

표지제작 김갑수 집사

2021년, 광야를 각오합시다

김 운 성 위임목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므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출애굽기 14:1~2)

2021년이 밝았습니다.

흔히 “새해가 밝았다” 말합니다. ‘해’란 ‘연’(年)을 말합니다. 또 ‘해’란 ‘태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일 년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새로운 태양이란 뜻도 있고,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으니,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새해가 밝았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때는 “새 해”라고 띄어 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2021년을 맞으면서 그간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태양이 세상을 비추듯 모든 것이 밝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된다 해서 빛이 비치고 밝아질까요? 혹시 더 어두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밝아질 것이라는 가벼운 기대보다는 더 어두울 수도 있다는 각오로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산 백성들은 그중 상당 시간을 애굽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나안으로 갈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애

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카이로 동북 50km 지점의 벨레스 근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약 420km 정도이니, 실제 여행로를 500km로 잡으면, 짐승을 거느리고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신명기 1장 2절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룻 길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광야로 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바다와 막돌 사이의 비하하룻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깝고 편한 지중해의 해변 길을 두고 길이 없는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몇 단계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며,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참하나님이심을 보이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 위한 율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대로 섬길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율법에 담아주셨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은 예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였고, 출애굽 후 둘째 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봉헌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고, 예배자로 살 때 복된 백성이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넷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 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부수적인 선물일 뿐이요,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얻지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21년이 가나안을 가져오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위협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클 것을 예상하면서, 2021년에도 광야를 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광야를 통해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2021년에도 감사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만남**

2021년 목회 표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김운성 위임목사

2021년을 위한 영락교회의 준비는 이미 6,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새해의 목회 표어를 정합니다. 정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2020년도 표어도 하나님께서 불현듯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영락의 성도들이 붙잡고 나갈 표어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중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어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여인은 예수님께서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여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밭을 바라보는 농부’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은 일반 농부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반인보다 녀 달을 앞서 생각 하셨습니다. 2021년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표어를 마음에 품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밭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농부에게 밭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농부가 밭을 살피지 않고 집안에만 있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성도 개인의 삶의 자리인 가정, 일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이 밭입니다. 영락교회에게는 한국 교회, 대한민국 사회, 북한, 세계 선교지 등이 밭입니다.

또 밭을 바라보려면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지 않으면 밭치만 보입니다. 눈을 들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면 사명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안의 고집과 이해관계, 전통이란 이름으로 당연시되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멀리 보면서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길 원합니다.

눈을 들기 위해서는 영적 여유와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문제를 털어버릴 수 있다면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1



년도에도 모든 성도가 영적 훈련에 함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9년부터 전체 성도가 집중적으로 영적 경주를 해 왔습니다. ‘기도대각성운동’, ‘전도대각성운동’, ‘119대작전’, ‘한친구운동’이 그것입니다. 119대작전과 한친구운동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젠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 일과로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성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을 하는 ‘말씀대로 365’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일 읽을 부분에 대해 부목사님들이 개요를 3~4분 동안 설명하고, 저는 그 뒤에 매일 읽은 말씀 중에서 핵심 요절을 중심으로 묵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매일 7~8분 정도의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온 성도가 체계 있게 성경 일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주변에 영상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을 바라본 후에는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가 ‘사랑의 현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을 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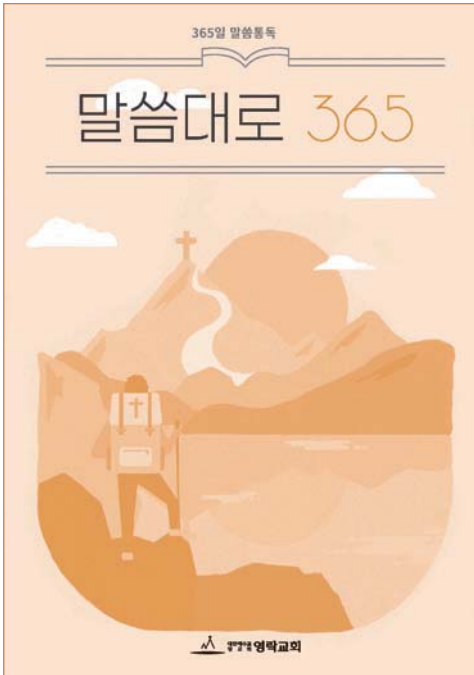
이상씩 품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차원에서라도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도록 하며 교회를 위해서도 직접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회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040 세대 이하 성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 등록하신 분 중 70년생 이후 세대가 많은 것과 남녀 비율에 차이가 작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제자훈련양육 프로그램과 전도가 왕성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차 신앙 소그룹이 천 개 이상 생겨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전개될 새로운 신앙 생태계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을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도들의 활동 공간 확보와 교역자 사택 등의 하드웨어적 과제를 잘 진행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락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손에 손 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만남**

새해에는 성경 통독 달립시다

- ‘말씀대로 365’ 운동을 시작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히브리서 12:1~2) 말씀합니다. 2021년 새해 목양부는 한 해 동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365’ 운동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대로’ 산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둘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 걷게 될 것

(시편 84:5)이라는 믿음입니다. 365일을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매일 작은 순종을 이어간다면 2021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 365일 동안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최소한 1독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2. 말씀 통독을 돕는 영상들

1) 성경 개관 영상

그렇다면 이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말씀을 통독하는 1년 동안 말씀을 품고 영적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숲을 보기도 하고, 숲속에 있는 다양하면서도 아름다운 나무들도 보게 됩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성경 전체 곧 숲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등 성경 각 권에 관한 개관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통독할 때, 먼저 창세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데, 창세기의 주제, 개관, 창세기 읽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여러 부목사님들이 통독 일정에 맞추어서 성경 각 권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 강의 영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더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장신대 김정훈 교수님의 구약 성경의 이해를 돕는 강의를 예를 들면, 모세오경(창세기~신명기),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으로 나누어서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장신대 김태섭 교수님의 쉽고도 은혜로운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본문 해설 및 ‘한 절 말씀묵상’

또한 숲을 걸어가며 숲속의 나무들과 꽃들을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며, 해당 본문에 관한 짧은 해설이 이어집니다. 본문의 개관 설명과 해설은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한 주씩 담당합니다. 그날그날 읽을 말씀은 본문을 낭독하는 음성을 통해 들으며 읽습니다. 이어서 위임목사님의 ‘한 절 말씀묵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중에 2021년의 하루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행복한 임마누엘의 여정임을 고백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3. 은혜 고백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위임목사님의 ‘한 절 말씀묵상’ 영상을 시청하면서 받은 은혜를 성경 통독 교재의 ‘한 줄 묵상’란에 기록합니다. 은혜받은 내용을 적어서 제출할 수 있는 용지를 담은 상자를 교회 곳곳에 비치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나 내용을 캘리그라피나 붓글씨, 연필 등으로 자유롭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모든 성도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적은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구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교재 활용법

‘말씀대로 365’ 운동과 관련하여 세 권의 교재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1권(1~4월)은 창세기~열왕기하, 2권(5~8월)은 역대상~에스겔, 3권(9~12월)은 다니엘~요한계시록을 다룹니다.

성경 각 권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는 교재와 영상을 참고한 후, 해당일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본문 개요’를 통해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성구’를 묵상하며 되새기고 위임목사님의 말씀 묵상 영상과 부목사님들의 본문 소개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내용을 참고하여 기도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기 ‘체크 표’에 읽었음을 표시합니다.

교재에 도장을 찍는 칸이 있는데, 매달 마지막 날에는 한 달간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성실하게 지킨 후에 교회 곳곳의 상자에 비치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1년간 세 권의 교재를 활용하여 성경을 통독하신 성도님들께 드릴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365’ 운동을 통해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은혜를 통해 시온의 대로를 함께 걷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황광용 목사
마포·영등포교구
목양부

교회학교는 세상이 갖지 못한 복음이 목표

-2021 교회학교 교육의 희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교회학교는 교육부입니까? 선교부 혹은 전도부입니까? 교육부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교회학교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교육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때,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하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선교와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하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답을 찾기가 더 쉬울 것이다. 어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100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교육을 계획할 때, 100명의 신입생이 들어왔으니 200명의 졸업생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하는 학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학교는 100명의 학생에게 무엇을-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100명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게 졸업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고민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학교는 어떠한 기준과 목표를 세워서 교육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

다. 학생을 단순히 숫자로 계수하여 교회학교의 학생이 줄었음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단순히 학생을 수치화하여 줄어든 학생의 수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 시대의 교회학교 교육의 위기라고 표현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바로 이점이다. 우리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이 학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교육은 변함없이 희망이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유일한 희망일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교육은 세상과는 다른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다. 교회학교 교사들 가운데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교회 교육의 성공 여부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반 학생들이 선생님 본인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다. 교회 교육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세상이 갖지 못한 유일한 복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 더욱 강조해야 할 목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학생 중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을 잃

어가고 있지 않은지, 구원의 확신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항상 함께 기도하고 허락하신 예배 자리로 인도하며, 예배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며, 회심의 경험으로 학생들을 이끄는 것이야말로 코로나 시대에 강조되는 교회 교육의 첫 번째 사명일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다. 영락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오직 영혼 구원만을 기다린 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교회 교육이라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영락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도록 교육하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적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회 교육을 맡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과 같이 다음 세대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교회 교육은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며,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한 교회학교는 주어진 학생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다음 세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의 잃은 양을 찾아서 주님께로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으로(행 1:8)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증인은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경험하고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인의 생명은 바로 그 사람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살아내는 증인으로서 찾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찾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한1서 4:7~8)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다음 세대를 알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와 교사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 교육의 희망이다. **만남**



노대웅 목사
고등부 전담



이웃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로

지난해 우리 신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표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만남을 매개로 이루어지던 신앙생활에 불가피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면 접촉 관계 중심의 ‘컨택트(contact)’ 문화에서 비대면 비접촉 관계 중심의 ‘언택트(untact)’ 문화로의 급격한 전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새로운 선교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예배와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은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2세기에 걸쳐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당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열악한 위생환경 등을 흑사병 전파를 가속한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만, 이 질병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근본 이유는 질병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전통과 경험에 기초한 치료법을 처방받았고, 이를 통해 흑사병은 건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 권위를 덧입은 중세교회 지도자들의 ‘무지’는 흑사병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세를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흑사병의 위협 속에 가톨릭교회가 있었다면, 21세기 코로나의 위

협 속에는 오늘날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개신교회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의 사명 및 성숙한 대응에 따라, 우리 개신교에 덧입혀진 부정적 이미지-‘믿음’의 가치를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종교가 ‘불신’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한 현실-를 극복할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으며, 한국 사회 내 개신교의 입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축소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자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웃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레 19:18, 막 12:31)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의 문제는 본질이 아닌 방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믿음의 한길을 가는 신앙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

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웃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 예배라고 믿습니다.

둘째,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힘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과 갱신의 기치를 내걸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 온 우리 개신교는, 갈라지고 흩어진 교회들 사이에서 주님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면, 그 일에 힘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의 관점과 입장만을 내세우면 다투고 나뉘지만, 타인의 형편과 입장을 먼저 고려하면 화해와 일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는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시 34:14) ‘일치 안의 다양성’을 이루는 주님의 한 몸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창조된 세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의 건강이 곧 나의 건강이며, 이웃이 안전하지 않다면 나 역시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속적으로 훼손된다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모두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생태환경 회복에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는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막 11:17)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는’(행 2:46) 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나와 이웃의 건강이 위협받고, 창조된 세계가 함께 신음하고 있는 이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 떨어져 있는’ 이때를 안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밖으로는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은총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만남**



홍정호 목사
신반포감리교회 담임



가정은 우리 신앙의 근원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성경의 시작인 창조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가정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림의 명령(창 1:28)을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연합(聯合)과 생명(生命)’입니다.

성경은 홀로 있음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홀로 있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에서 ‘좋지 아니하니’라는 문맥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좋은이 덜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은 본래 하나도 없고 모두가 심히 좋았기 때문(창 1:31)입니다. 이런 이유로 혼기를 지났다는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비혼 남녀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이와 성별, 인종을 넘어서 한 사람의 고유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고 복되게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어도 그 자체가 존귀한 남자와 여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왜 한 몸을 이루어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연합으로 존재하는 창조주의 신비를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연합의 신비(창 3:22)를 통해서 영존(永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생명을 다루는 신적인 일에 참여하여,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선한 사역에 동역할 사람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초청하신 것(엡 2:10)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생령(창 2:7)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살아야만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라는 관계적 제도를 통해 결코 함께 될 수 없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연합하여 ‘삼위일체’로 영원히 계시는 창조주의 존재 방식을 피조물인 인간이 부부라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결혼을 통해 가정에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출생이라는 창조의 신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것같이, 자녀는 부모의 형상을 토대로 태어나며 부모의 양육이라는 보호 속에서 자라나고 그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정적 장면이 가정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부부라는 연합으로 경험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함으로 생명의 실

체와 창조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은혜로 얻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우리 믿음의 근원적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성도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신앙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없이,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봉사와 선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은 연합과 생명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재의 성도들 각자의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이 믿는 자의 영적 실력이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우리의 거룩한 제사입니다.

전문적인 배움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학을 잘 모르더라도, 한 사람의 자아 형성과 그 삶의 행복이 부모와 자라온 가정환경에 있음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압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믿음의 척도라는 중요성을 넘어 다음 세대와 교회의 미래의 근원으로 더욱더 소중합니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의 믿음의 영역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좀 더 넓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정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관계성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에게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십시오. 그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영락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부흥의 도화선이 되거나 이전과 같은 수적인 교회 성장을 이



룬다면 그 단초가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연합과 생명’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섬겼던 교회의 위임목사님께서는 권면을 기억합니다. 위임목사님 본인이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마치고 사임할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서는 떠나는 전도사들에게 “우리 시대에는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목회자의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들의 시대는 다릅니다. 가정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먼저 믿음을 실천하고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목회 지도의 연장선에서, 저도 최근에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라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준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목사의 독특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것 두 가지는 예배와 결혼(가족)이었다.”

영원한 기쁨의 원천은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의 삶을 담고 있는 가정에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연합과 생명’을 찾고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영락(永樂)을 누리고 경험하십시오. **만남**



강승훈 목사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언택트의 방향은 인간의 만남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조명받은 트렌드는 ‘언택트(untact)’ 기술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기술이 더욱 중요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택트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간과의 단절이나 대체가 아니라, 인간적 접촉을 보완하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휴먼터치(Human Touch)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하이테크 시대의 하이터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이미 20년 전 하이테크 시대에 인간적 감성인 하이터치를 강조했다. 첨단 기술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간 중심의 휴먼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에 있어서 인간 중심성은 디지털화가 고도화될수록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다. 그에 의하면 하이터치는 인간성을 수호하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인간성을 저해하는 기술을 거부하는 방식을 의미한

다. 기술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인간과 기계의 협업과 시너지

‘눔 코치’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눔’의 프로그램이다. 창업 초기에 이 회사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IT 기술을 가지는 것이 목표

였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기술에 맞췄고, 직원 대부분을 엔지니어로 채웠다. 그러나 뛰어난 기술에도 한계가 있었다. AI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화 고도화되어도 사용자가 혼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인간 코치를 도입해서 고객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게 했다. 그러자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결국 사용자에게 일대일 방식으로 사람 코치를 붙이되, 역으로 AI가 사람을 보조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로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우리가 최고의 기술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회사들도 사실은 사람의 손길을 필수적으로 거친다. 기계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감성적 능력을 결코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도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유명한 넷플릭스도 예외가 아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의 각 영상에 대한 정보를 다는 태깅(Tagging) 작업을 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일명 영상 콘텐츠 분석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들은 신규 콘텐츠가 들어오면 일일이 감상하고 분석해서 태그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디테일 작업은 AI가 수행하기 어려우며 경험이 풍부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인공지능을 통한 초(超)개인화 기술로 유명한 넷플릭스도 사람의 손길, 즉 휴먼터치를 통해 사람들의 만족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인간과 달리 AI에게 없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다. 콜센터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챗봇은 기업에 있어 편리한 기술이지만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별로 높지 않다. 채팅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인공지능에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영역만큼은 인간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디지털 기술은 인간과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야 비로소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언택트 패러독스

인간적 접촉을 배제하는 언택트 문화에서 인간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은 왜 발생할까? 기술이 주는 큰 편리함 이면에 현대인의 외로움과 소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한 접속이 늘어나면 과연 인간관계는 더 풍부해질까?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 이는 온라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지나친 온라인 사용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과잉 연결은 현대인을 연결 강박에 빠뜨렸다. 스마트 기기는 SNS를 통한 타인과의 교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함으로써 현대인의 외로움을 오히려 증폭시킨다. 사람들은 때로 SNS 세상에서 따돌림의 공포를 의미하는 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자신의 계정에 끊임없이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누군가와 연결을 시도하고 여기에 ‘좋아요’가 붙지 않으면 큰 실망감을 느낀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온라인으로 연결될수록 역설적으로 외로움이 더 심해지는 ‘언택트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앱이나 사이트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는 고도의 전략적 심리 장치를 설계해놓았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크롤을 해서 아래로 내리면 끝도 없이 새로운 콘텐츠가 나온다. 유튜브는 동영상 끝났으면 다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자동재생이 설정되어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일단 접속하면 고객들을 낚아채 몰입시키고 중독시킨다. 앱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최대한 많은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에 묶어놓아야 한다. 앱 회사의 입장에서 사용자들은 광고주들에게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영상 앱이나 SNS에서 개인별로 추천하는 콘텐츠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콘텐츠만 선별해서 보여주는 방식인 것이다.

언택트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에 골디락스 가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숲속에서 길을 잃은 골디락스

는 곰의 집에 들어가 곰이 끓여놓은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세 가지의 수프 가운데 세 번째 것을 먹고 행복해한다. 이처럼 ‘골디락스’는 적정하고 이상적인 상태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온라인이나 언택트 기술도 마찬가지다. 기술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추종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면과 비대면, 인공지능과 사람의 적절한 결합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상적인 황금비율을 찾는 일은 언택트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생활에서도 비대면 기술은 불가피한 일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도 간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는 무엇이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만남**



이준영 집사
노원교구
『트렌드코리아2021』 공저자

가난조차 행복하게 하는 믿음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기침, 가난, 그리고 사랑...” 유럽에 흩어져 살아 가던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로도 나왔던 말입니다. 인간의 삶을 가만히 응시하는 애잔한 눈빛이 느껴지는 말이죠. 어디선가 숨죽인 기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만 꼭꼭 숨겨두려 했던 사랑이 표정으로 몸짓으로 어색한 분위기로 다 드러나 버린 당혹스러움이 영화처럼 아련하게 다가옵니다.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중에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가난을 들리고 싶지 않은데 가난은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깁니다. 가난과 얽혀 있는 비참한 일상, 부끄러움, 무기력, 분노.... 가난은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저주’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 취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은 곧 가난을 의미하니까요.

고대인들은 ‘복 있는 삶’과 ‘저주받은 삶’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복된 삶의 정반대 편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삶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통념은 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은 파격적인 반전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눅 6:20) 여기서 ‘가난하다(ptochós)’라는 말은 그냥 남들보다 별이가 시원찮은 정도의 가

난이 아니라, 구걸해서 먹고살아야 할 정도의 가난함을 뜻합니다. 비루하고 비천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가난’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찾아내십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마음, 그런 복된 삶의 태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누구나 좋은 집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취업은 필수적이죠. 가능하면 미래가 보장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가난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나선 사람들, 그 때문에 막막한 가난을 버려내야 했던 사람들, 곧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을 당하며 많이 울어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가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시절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나는 어떻게든 잘 취업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 거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나이브한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은 가난에 빠지면 당황하고 분개하고 원망합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가슴에 품은 사람

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이런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내 삶을 꿰뚫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아쉬울 것 없는 부요함 속에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들에게는 섬뜩한 저주의 말을 퍼부으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눅 6:24)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자기만족에 빠진 사람의 여유로운 웃음을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저주하신 것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 여유롭고 쾌활하게 깔깔깔 웃는 삶, 사람들의 인정... 예수님은 왜 그렇게 혹독하게 그런 ‘평범한’ 삶을 저주하셨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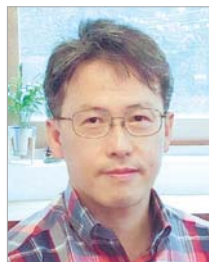
풍요로운 삶,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 올-인하는 삶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뭘까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비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 넉넉하게, 인정받으며 살아도 언제든지 질병과 죽음에 포획될 수 있는 연약하고 비천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은 그걸 살짝 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간절히, 목마르게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취업과 진로의 문제는 평생 우리의 삶을 따라다닐 겁니다. 청년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험을 자주 합니다. 취업 준비로 바쁠 때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 믿음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취업이 되면? 바쁜 직장 생활과 직장 분위기를 타하며 헌신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직장에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고민(예컨대 파트너?)으로 잔뜩 푸념만 늘어

놓습니다. 취업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로 생각했지만 변함없이 외롭고 불행하고 쫓기는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운 좋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합니까? 갑자기 전염병이 돌면? 뜻밖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금방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 우리의 건강입니다.

이것이 실상인데도 취업 잘하고 월급 잘 나오면 살짝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잘 나가겠지?’ 아닙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비참의 나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든지 마음을 낮추고 몸도 낮추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고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처절하게 마주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난이 행복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외 없이 비참한 인생에 값없이 쏟아 부어진 사랑, 나의 가난과 상처와 흉터마저도 행복의 조건으로 만드시는 사랑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감출 수 없었던 사랑,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 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만 내 안에 있다면! 힘겨운 구직의 과정, 막막한 미래, 막연히 버텨내야 하는 가난, 눈물, 피곤한 하루하루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희미해졌다면? 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십시오. **만남**



손성현 목사
창천교회 청년부 담당

겸손히 주님을 구합니다

저와 아내는 함께 중등부 여디디야 찬양팀 교사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중등부 교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나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때라 온라인 예배 자체가 좀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중등부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3주 정도 지난 주일 아침에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중등 1부 예배를 마친 시간에 갑자기 온라인 방송용으로 쓰던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되어 2부 예배를 송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등부 교사로 섬기는 분의 중학생 딸이 보낸 메시지였지요. 상황이 급박한 터라 서둘러 카메라와 장비를 챙겨서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낸 학생이 알고서 저에게 연락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제가 생각나서 연락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물어보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날 중등 2부 온라인 주일예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이후 중등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서 고군분투 온라인 예배를 이끌어 오셨는데,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날 사고를 통해 사역자들의 수고와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 일을 계기로 저는 온라인 예배 송출 사역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이때를 위함이라(에 4:14)’는 말씀만이 제 삶에 남습니다.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었던 제가 마침 중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마침 긴박한 상황에서 한 학생을 통해 연락받았고, 그 일을 계기로 제가 가진 달란트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된 모든 과정이 은혜였습니다. 2020년은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휘몰아쳤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예배를 섬기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매 주일의 온라인 예배를 함께 이어오고 있지만, 라이브 예배 송출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100% 라이브로 진행하는 온라인 송출이다 보니, 수시로 바뀌는 인터넷 연결 상황, 마이크의 음량 조절, 카메라 세팅 변수들로 인해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배 도중에 방송 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제대

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함께 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는 중등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이 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웃는 소리가 희귀해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오프라인 예배에서 만나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반가운 악수, 포옹 인사, 또는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보기 힘든 풍경이 되었습니다. 장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특성상 예배를 방해하는 주위 환경들이 너무 많을 터인데,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그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예배의 현상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전부였는지... 겸손히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고 누구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기를 기도합니다. 우

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느 때보다 2021년,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며 각자의 삶의 순간마다 예배하는 삶이어야겠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2021년에는 학생들의 웃는 모습을 더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교사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어떠한 상황으로 다가오더라도, 아이들과 많이 소통하며 참다운 신앙생활, 중등부 생활을 항상 지지하는 참된 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남**



이학주 성도
종로·성북교구
중등부 여디디야 교사

통합 온라인 주말학교로 새 가능성을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학교 교육과 주일예배는 이전과는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주일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변화입니다. 3월 첫 주부터 아동부 주일예배를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또는 제한된 공간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기대감보다 ‘과연 아동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주일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각 반 선생님들께서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전화 심방이나 SNS를 통해 살뜰히 살피며 기도로 응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이 주일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아동부 친구들이 신나게 찬양하며 울동하고 집중하여 말씀 듣는 모습의 인증샷이나 인증 영상을 보내주셔서 주일 저녁에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각 가정에서 보내준 사진은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한 곳에 모으니 ‘공적 예배’인 주일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양육프로그램의 형식 변화입니다. 주일예배 이후의 성경 공부나 주중 신앙 양육프로그램이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동부에서도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The Story’ 프로그램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Family in the story’(아동부 통합 온라인 주말학교)를 진행했습니다. 1학기에는 영락교회 2020표어 “이때를 위함이라(예 4:13~14)”의 표어 아래 ‘이때에 우리 가정(자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학기에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로 진행했습니다. 1학기에는 매주 성경 공부와 활동 후 댓글 또는 인증샷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2학기에는 온라인 수료 예배와 전화 이벤트나 문자 이벤

트를 통해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아동부 ‘위드’는 pdf로 교회 홈페이지 게시 후 책자로도 인쇄해 각 가정에 배송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양육을 위한 자료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드’를 활용한 부모-교사 소통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눈을 들어 발을 보라(요 4:35)”의 표어 아래 새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여름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2박 3일 동안 함께 모여서 수련원이나 기도원에서 친구들이 땀 흘리며 신나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몸을 부대끼며 신체활동도 하고, 물놀이를 통해 친구들이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부 통합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는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교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프로그램과 각 부서 모든 교사가 함께 모여 준비한 성경학교 활동 패키지,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섬김을 통해 한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간 성경학교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프로그램 준비부터 선생님들의 폭넓은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소통의 장의 변화입니다. 교사 모임, 학부모 기도회, 반별 성경 공부 등 소통의 장으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병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부에서는 각 부서의 교사 모임을 줌(Zoom)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통합 온라인 학부모 기도회를 시도해 보았는데, 참여하신 많은 부모님께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반별 성경 공부도 소그룹으로 온라인을 통해 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장을 더 확장하여 더 깊은 나눔과 교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삶이 예배임을 알게 하였고, 새로운 일상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예배 방식으로 인도하심은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도 생각지도 못한 감동의 순간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만남**



신주현 목사
아동부 담당

성경 들려주고 상상력 키워요



2020년 2월 대면 예배를 끝으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주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가 가정과 일상에서의 예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양식과 신앙생활의 모습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낮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하므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상황이 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영유아유치부 사역의 꽃인 여름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는 '말씀 파워! 예수님'(딤후 3:15)이라는 주제로 2020년 9월 12일(토)부터 9월 13일(주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키트와 영상링크를 통해 각 가정에서 참여했습니다. 찬양과 신체활동을 통해 '말씀 파워! 예수님'의 의미를 온몸으로 배우고 '바울과 실라' 연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활동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특별활동은 복음자동차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

니며, 복음이 필요한 곳을 살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활동은 장애물을 넘으며 말씀의 힘을 몸으로 경험하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부모가 신앙 교사로 세워지고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친구에게 들려주는 말씀



영유아유치부에서는 신앙교육을 위한 청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79일 동안 성경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읽어주어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보자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 끝에 간단한 질문을 넣어서 아이들과 부모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전달받은 링크를 부모들이 한 가정에 전달하며 전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놀이터

말씀 놀이터는 예배 후 2부 활동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미술, 신체, 음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조이스쿨

조이스쿨은 임신한 여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엄마 됨을 수용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을 영적, 육체적, 심리적인 영역에서 신앙으로 준비하는 교육과정입니다. 2020년 11월 7일(토)부터 11월 28(토)까지 매주 토요일 10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예배, 다양한 강의와 2부 활동을 통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신앙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 됨의 과정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영·유아·유치부 교육표어는 ‘종국종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요 4:35)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영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새싹과 같은 영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어린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남**



유엘리사 전도사
유아부

면접준비 1호는 ‘웃어보세요’

지난 두 달 동안 『만남』의 취업 멘토링 코너를 통해, ① 취업시장 동향 ② 입사지원서류 작성에 관해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③ 취업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의 최선을 살펴본다.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1대1 취업클리닉을 하는 중에 한 학생이 입사지원서류를 당당하게 내미는 것이 마치 ‘나 이렇게 준비 잘했으니, 뭐든지 물어봐라’ 하는 것 같았다. 언뜻 보니 스펙(학점, 어학성적, 자격증, 대외활동 등)이 잘 준비되어서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말을 건넸다. “한 번 웃어볼래?” 갑자기 똥판지 같은 말이었는지 그 학생은 무척 당황했지만, 전문가가 요청하는 것이니 그에 맞추어 웃으려고 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웃지 못하더니 웃는 것이 취업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묻는 것이다. 그래서 장황하게 ‘웃음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당시 그 학생의 유일한 약점이 잘 웃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대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취업 준비 활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아침마다 자신을 보고 웃어라’ 하며 강조한다.

면접에 대해 강의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면접에 합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는다. 그 질문의 가장 명확한 대답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이 ‘호감’이라는 단어 안에는 적당한 실력/업무능력도 포함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상, 즉 웃는 낯인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인지 하는 점이다. 달리 말하자면 한 직장에서 내가, 김 과장이, 이 대리가 온 종일이라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할 사람인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말이다.

주요 면접 질문 및 대답 요령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채용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볼까,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떠올랐다. 인터넷을 뒤지니 ‘최고의 인터뷰 질문 10개’라는 동영상이 있다. 내용이 우리와 너무나도 흡사해서 놀랐다. 그 10가지 질문을 소개하며, 답변 요령도 함께 보기로 한다.

1. Tell Me About Yourself

당신에 관해서 소개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면접 질문이다. 보통은 “1분 이내로 자기소개를 하세요”라고 질문한다. 사실 면접관이 지원자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우리 회사에 얼마나/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사람인지에 대한 점이다. 따



라서 짧은 시간 내에 연대기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옥여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자신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언급하는 것이 좋다. 또는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별명’을 언급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Why Should We Hire You?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하나요

이 질문은 “만약 우리가 당신을 뽑는다면 왜 뽑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맞을 것이다. 즉 ‘당신의 강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은가’와 같은 의미의 질문이다. 이 질문의 모범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제가 가진 이러이러한 강점이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잘 부합되며, 협업 능력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조직 생활도 잘하는 회사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What Is Your Greatest Strength?

당신의 최고 강점은 무엇인가요

4. What Is Your Greatest Weakness?

당신의 최대 약점은 무엇인가요

‘성격의 장단점’에 관한 3, 4번 질문은 과거

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많이 하는 질문으로써 이 질문은 성격보다는 업무상의 강점과 약점에 중점을 둔 질문이다. 요즘 우리나라도 직무 중심 채용방식이 보편화하면서, 이 질문을 많이 한다. 특히 극심한 취업 경쟁으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할 때 그들보다 뛰어난 강점이 무엇이 있습니까?”라며 상대적으로 뛰어난 점을 물어보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약점을 물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약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완해야 할 점’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해 지원자의 경계 태세를 누그러뜨리곤 한다.

5.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왜 여기서 일하기 원하나요

이 질문은 자소서 또는 면접에서 ‘지원동기’ 정도에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동기에 왜 이 회사인가, 왜 이 직무인가의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보통 첫 번째 질문에는 회사의 조직문화나 사업 분야의 성장세 등의 이유로 대답하면 무난하다. 왜 이 직무를 하려고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는 추가 질문에 조심해야 한다. 지원자의 대답과 면접관의 꼬리 질문을 예로 들면, “인사관리론 수업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사람들의 능력을 잘 파악하는 적성이 있어서, 저의 적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여 이 업무(인사)에 지원했다” “그때가 언제였나” “대학교 3학년 때였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인사 업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나” ... (묵묵부답) ...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왜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와 계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결심한 이후에 그 직무에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6. Why Did You Leave Your Last Job?

왜 전 직장에서 퇴사했나요

경력사원 채용 시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다. 중고신입의 경우도 이러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회사원의 경우, 퇴사 사유를 분석해보면 이전 회사에서의 부정적인 측면과 옮기려는 새 회사의 긍정적인 측면이 어우러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퇴사 사유를 물을 때 이전 직장에서 경험했던 불만을 시시콜콜 이야기한다면 듣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 지원자는 자기가 몸담은 조직에 불만도 많고,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부정적인 면은 절대 얘기하지 말고, 장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것이 좋은 답변 방법이다. “전 회사에서 OO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회사의 채용공고에 게시된 업무 내용이 전 회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서 해보고 싶다”와 같은 답변이 바람직하다.

7. What Is Your Greatest Accomplishment?

당신의 최고의 업적/실적이 무엇인가요

경력사원이란 이전 회사에서 달성한 업무 실적을 말하면 되고, 신입사원의 경우는 업무 실적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통틀어 제일 잘한 일을 말하면 된다.

8. Describe a Difficult Work Situation and What you Did to Overcome It

어려웠던 환경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세요

이 또한 자소서나 면접에서 자주 묻는 단골 질문이지만, 의외로 꽤 많은 신입 지원자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어려운 일은 없었다며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의 지원자는 큰 어려움으로 기억할 만한 경험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있었어도 남에게 털어놓기 싫어서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답변하지 않는다고 감점이 되는 것은 아니긴 하나, 어차피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신의 홍보 및 세일즈 또한 면접에서 주어진 기회이므로, 회피하기보다는 이러한 질문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다.

9.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5년 후에 당신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3년/5년/10년 후의 오늘이라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 식으로 묻곤 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미래의 포부/야망 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던지는 질문인데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10. Do You Have Any Questions?

무슨 질문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라는 질문은 무슨 거창한 답변을 원하는 질문이기 보다는 의례적으로 물어보는(우리만 많이 물어봤으니까 당신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것으로, 각 면접관이 이미 평가를 끝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질문의 답변은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면접을 무난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입사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일토록 면접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정도로 인사하면서 끝내면 된다. 그런데 면접 결과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곱게 물러가지 말고 짧지만 강렬하게 자신을 홍보하는 또 다른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들이 취준생이 면접에 대비하여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하며 3개월의 연재를 마친다. **만남**

문의 seankim@kairos-consulting.co.kr

제공 카이로스컨설팅

외로운 아이들, 홀로 사는 어르신을 섬깁니다

- 평택 길위의교회 사람들 이야기



‘인도하심’의 시작

벌써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인생은 스스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길위의교회도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한 은혜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저희가 속한 평택 지역은 ‘읍’과 ‘리’ 단위 농촌 지역입니다. 또 이곳은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는 지역으로 소위 ‘기지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문화와 문화, 인종과 인종, 도시와 시골, 부와 빈 등 다양한 상황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경계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2천 년 전 문화와 지리의 경계선에 있었던 안디옥교회처럼, 길위

의교회도 주께서 이 경계선 위에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사실 길위의교회는 교회 개척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부친께서 위독하셔서 귀국해 간병하던 저는 어느 날 눈앞에서 한 아이의 큰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급히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고 책가방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부모를 찾았는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성이 다른 아버지와 가정의 말 못 할 어려움으로 학원 사교육과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 지역에 200명이 넘었으며, 이 지역의 청소년 자살 시도율이 전국에서 1위(전체 평균의 4배)라는 것을 알았습니

다.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길 위에서, 운동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아이들을 모아 공부를 했고 이후 근처 군부대 청년들의 도움으로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야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몇 아이들의 요청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길위의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심

예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지키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의 ‘균형’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젊은이와 어른이 서로를 의지하고 손잡고 살아가는 ‘조화로우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정신을 실천하고자 아이들과 부활주일까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더 어려운 형편의 독거 어르신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차비를 아껴 걸어 다니고, 자신의 물건을 팔아 첫 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줍는 10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구급약, 형광조끼, 마스크, 생필품 등을 선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구제 사역으로 지금까지 매달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연말에는 재능기부단체 손·만·세(손뜨개로 만드는 세상)에서 500여장의 모자와 목도리를 보내와 지역의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움 요청에 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길위의교회 공동체는 ‘예배’, ‘교육’, ‘구제’, ‘선교’라는 네 가지 교회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사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쌀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주변에 쌀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한번은 쌀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을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며칠 후 처음 보는 미군으로부터 미국 쌀 10포대 정도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언젠가는 조류 독감으로 계란 값이 폭등해 걱정했는데 그 주 토요일에 집사님 한 분이 오이를 주신다고 연락하고 오셔서 오이 몇 개와 계란 10판을 내려놓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경험했던 신비로운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야학과 교회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가 많지만 이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구절에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역의 귀중한 열매들

이곳 야학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목숨을 끊어 버리려 했던 아이, 부모의 폭력과 다툼, 친구들의 따돌림, 가난과 장애의 아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도 읽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관내 중학교에서 전교 1, 2등은 물론이고 아이들 모두가 전교 10등 안에 있습니다. 길위의교회 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운영되며 아이들에게도 전액 무료이지만 단 하나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을 절대 외면하지 않기’입니다. 올해에는 코

로나로 인해 선생님이 부족해지자 아이들이 친구들과 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모두 눈부신 성적과 결과를 냈습니다. 4년간 훈련받은 아이들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친구들을 도우며 교회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도 새벽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고 학교에 갈 정도로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조만간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근교 농촌 사역을 위한 작은 바람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흔히 도시개척교회에서 고민하는 재정자립, 노령화, 성도 수 감소에 대한 문제들이 농촌 교회들 속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목회자들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지속해서 도시로 향하고 있는 반면, 농촌 선교에 헌신하는 젊고 열정 있는 목회자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재정, 가족 상황, 자녀 교육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농촌의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의 열매가 가능하게 하려면 재정자립이나 선교의 기술적 혹은 농촌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앞서서 헌신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농촌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여 도시교회처럼 만들겠다는 생각이나, 반대로 농촌 교회를 정적이고 특색 있는 영성수련원과 같이 구성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농촌에 남아야만 하는 소수의 사람, 언젠가는 자라서 도시로 가게 될 아이들, 농촌으로 일

하러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 속으로 찾아가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의 동역자들,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와 각 교회의 노하우 그리고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특수한 농촌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영락교회도 한경직 목사님과 실향민 27명이 모여 천막교회에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향후 재정자립이나 몇만 명 대형 교회를 꿈꾸며 공동체를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방 후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 내려온 사람들! 비록 적은 수였지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지금 영락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대형 영락교회도 너무나 귀한 열매이지만, 70년 전 천막교회의 소수의 성도는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열매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작은 열매들이 헌신하는 목회자와 소명을 가진 동역자들을 통해 지속해서 세워진다면 농촌 교회의 선교도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저희 길위의교회는 이와 같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영락교회와 길위의교회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



정용준 목사
길위의교회 담임

비대면 전도훈련을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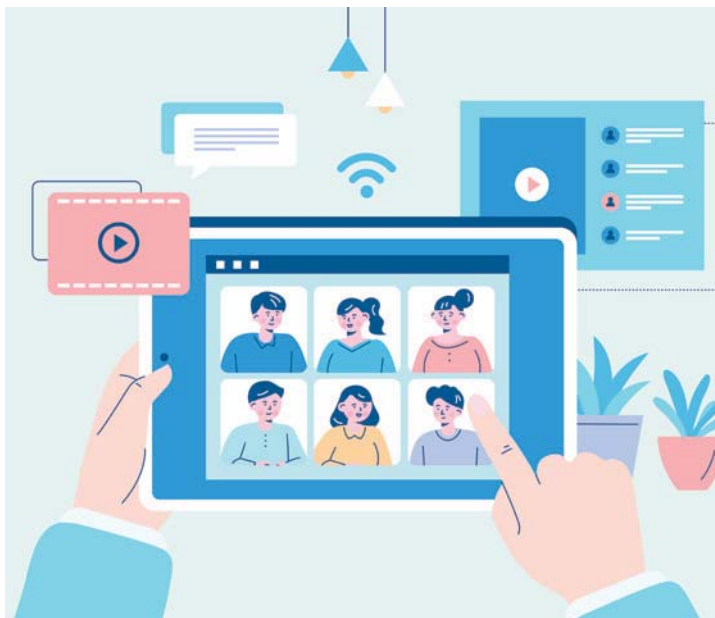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도훈련도 비대면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떠밀리다시피 시작한 일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컸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대면 전도훈련을 시작하기까지

2020년 봄 학기(토요반 35기)를 위해 참가자 모집, 훈련자 면담, 그룹장 오리엔테이션 등 모든 준비과정이 끝나고 개강예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모임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능하리라 기대하며 35기 훈련에 신청한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다렸지만, 8월 말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되면서 하반기 훈련도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도폭발 한국본부에서 온라인 훈련 세미나가 있어 스태프 몇 분이 참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훈련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까? 대면 훈련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폭발훈련의 특성상 비대면 훈련이 가능할까 염려되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대면 상황에 대비하여 모의훈련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미 신청한 분 중 희망자(2단계 이상)에 한 해 6주 정도(정상 훈련 과정은 13주)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2020년 10월 24일 54명이 온라인으로 개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한 비대면 전도훈련

개회 예배 첫날, 화상회의 참가 방법을 물어가며 비대면 훈련에 오신 모든 참가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눈만 보며 스치던 성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표정을 보며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많이 기뻐하고 이렇게라도 시작한 훈련에 감사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낮선 비대면 훈련이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훈련 시간을 2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대폭 축소하고, 전체 흐름은 대면 훈련과 비슷하게 운영했습니다. 먼저 전체모임방으로 들어와서 경건회가 끝나면 소회의실로 이동(소회의실을 미리 할당하여 자동 이동)하여 단계별 모임을 하고, 단계별 모임이 끝나면 다시 전체방에 모여 암송 점검 및 공개 보고회, 광고 및 기도회로 전체 모임을 마치면 전체방에서 나간 후 각 그룹장님이 초대하는 방으로 들어가 30분 정도 그룹별 모임을 하고 마쳤습니다.

첫 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2주

차에 비대면 전도 시범이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예화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게 되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글을 빌려 예화 그림을 그려준 이예은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이 그림 자료는 전폭 본부에 공유했고, 다른 교회 온라인 훈련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3주 차에 그룹별로 비대면 전도 실습을 하고 4주 차부터는 조별로 비대면 전도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낯선 비대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먼 지방에 계신 분을 줌으로 만나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암투병 중인 훈련참가자의 조카가 눈물로 절신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훈련의 효율성 및 발전방안

먼저 효율성을 살펴보면 첫째, 감염 우려 없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감염예방

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대면 훈련이라면 접촉할 수밖에 없고 함께 차라도 마시게 되면 감염 우려가 커지지만, 비대면 훈련은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보며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훈련이나 전도를 위해 모임 장소에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각 참가자 스스로 사전에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참여한다면 가족에게 그 시간은 교회에 갔다 생각하여 협조해 주시도록, 혹시 전화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그 시간에 전화하지 않도록 주변에 사전 공지 및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고 거리가 멀어 전도가 힘든 전도 대상자를 화상으로 초청하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준비만 잘 되면 얼마든지 전도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발표자(전도자)에게 훨씬 집중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참여자 모두 음 소거 후 발표자를 바라보니 발표자에게 훨씬 집중도가 높습니다. 실제 전도 상황에서도 카페나 식당에서 대면 전도할 경우, 주변의 소음이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화상으로 만날 시 이어폰을 활용하면 방해 요소 없이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훈련이 좀 더 잘 이루어지려면

첫째, 잘 구성된 운영팀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진행자와 시스템관리자(Zoom에 익숙한 자)를 구분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며, 실시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같은 공간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참가자들이 훈련 시간과 공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비대면 훈련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입·퇴장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얼굴을 비공개로 해 놓거나 이동 중 참여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전체 진행과 집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화상회의와 관련된 간단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하고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동의와 안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가자뿐 아니라 전도 대상자도 화상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간단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화상회의 시 얼굴과 이름이 다 드러나게 되므로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동의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낮은 비대면 환경에서 어떻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고 향후 대면 훈련이 재개되더라도 그룹 모임이나 전도 등에서 필요하다면 화상회의의 장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흡한 준비상태에서 좌충우돌 시작했는데, 참가자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복음으로 재무장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은 훈련이지만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함께하신 모든 분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전도 훈련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이정순 집사
고양·파주교구
(2020년도 전도부 전도훈련팀장)

탈북 청소년들 믿음과 꿈이 자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탈북청소년, 청년 대안학교인 한꿈학교 교장 김영미 집사입니다.

제가 한꿈학교에서 학생들과 마음을 나눈 지 벌써 5년이 되어갑니다.

새문안교회 전도부에서 전도훈련을 받으며 복음 전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꿈학교의 수학 교사를 제안받았습니다. 탈북학생이란 말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정부 장암동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학교를 찾았을 때 학생들은 예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고 2주간의 공부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벌써 제 마음에 모두 들어와 마치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곧바로 저의 다른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학생들과 아침을 먹는 시간부터 저녁까지 공부뿐 아니라 남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많은 일에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많은 일에 가장 우선시 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있던 돌, 자갈, 바위가 부서지고 그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릴 마음 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와 한꿈 교사들의 무기입니다.

한꿈학교 학생들은 탈북청소년뿐 아니라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고등학교 과정 점정

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의 길을 결정합니다. 졸업 전에 컴퓨터와 영어, 논술,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소소한 변화만 느끼게 하던 학생들이 고백합니다.

“제가 공부의 첫걸음부터 시작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하는 말을 수줍게 전할 때,

“선생님, 저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려야죠. 선생님도 예배드리셨지요?” 날마다 바쁘다던 친구가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 북한과 중국, 한국에서 저를 인도하셨음을 알았어요. 저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울면서 전화 왔을 때, 제게 천국의 기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꿈학교 학생들을 위해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꿈학교 대입반 학생들은 북한선교부의 뉴코리아국제학교를 통해 논술과 영어 과목에 더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3남 선교회에서 장학금으로 후원해주셔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격려해 주심으로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올해 한꿈학교에서는 6명의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고 두 번의 검정고시와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이북5도위원회에서 주최한 통일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에서 3명의 학생이 금상(행정

안전부 장관상)·은상 수상과 입선하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주셔서 학생들과 임직원들 모두 풍성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와 교사들 모두 학생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꿈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학교가 지상으로 올라와 햇볕을 마음껏 쬐고 바람도 느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지상 이전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꿈학교를 졸업하며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박수경 학생의 감사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한녕 하세요.
항상 한꿈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한꿈 학교에서 중.고등 검정고시로 보고 2021년 이화여자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박수경입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전환 마음들이 모여 저희에게
전달된 장학금을 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
적습니다.
배움이 방식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큰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대학에 가고 못들게 사느고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만남도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더욱더 정진하며 사회 약자를 돕고
나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 하겠습니다.
맛이하는 2021년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2020. 12. 04
한꿈 학교 박수경 올림



김영미 집사
한꿈학교 교장
새문안교회

주님을 갈망할 때 깊어지는 교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시작했던 119대작전, 그리고 이어진 슬기로운 신앙생활 ‘한 친구 운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79일간 이어온 ‘한 친구 운동’은 말씀과 내가 친구를 맺고, 말씀을 나눌 친구를 맺고, 말씀을 전할 친구를 맺는 운동을 통해 사탄에게 영적인 흐름을 빼앗기지 않고,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신앙생활 형식을 유지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는 바벨론 포로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맞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포로시기를 견디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위기 속에서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임을 통한 교제를 할 수 없어 위기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말씀과 친구를 맺는 유익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친구 맺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교제해야 합니다. 가끔 생각날 때만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물이 없거나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일상에서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을 공부할 때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

만 친밀한 교제는 잠깐의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시 16:8)

17세기 프랑스의 작은 수도원에서 살았던 평신도 수도자인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갈망,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갈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갈망, 이러한 갈망이 있을 때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생명(生命) 즉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각자가 처한 환경과 관계 없이 주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건강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

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매 순간의 일상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179일간 ‘한 친구 운동’을 통해 날마다 주어진 말씀을 읽고, 위임 목사님의 한 친구 말씀 영상으로 묵상했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이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읽는 것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제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과 친구를 맺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만남**



전병주 목사
노원교구
사회봉사부, 친교부
(2020년도 목양부)

말씀 묵상으로 거듭난 소망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2021년 영락교회 달력을 받고 첫 장을 넘기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말씀입니다.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니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너는 내가 기뻐할 일을 하고 지냈느냐?”라고 물으시면 대답할 만한 일을 했을까? 그리고 보니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 욕심에 매달려 사느라 성경 말씀에도 소홀했고, 코로나19 때문에 교우들과의 교제도 없었고, 피곤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말씀 묵상에도 소홀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한 친구 운동’을 묵상하며 어느 날 구역장 안창란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친구 운동’ 읽고 묵상하고 계시나요?” 하신다. “네, 그런데 어제 읽은 말씀이 오늘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더니 웃으시며 “아침에 묵상하고 구역 단톡방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새롭게 기억날 것 같아요.” 권사님의 권유로 매일 5번 읽고 단톡방에 오늘의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잠언 21:23)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요기 22:2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 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다”(시편 36:7)

지난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살 때, 나는 많은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주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님의 자녀로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도 갖추지 않고 살아온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도 모르고, 내가 싫어하면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남을 비판하고 흥보며 살아온 세월을 후회합니다.

‘한 친구 운동’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는지, 나의 가벼운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아주 아팠을 텐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듭나는 성도가 되려 합니다.

‘한 친구 운동’을 통해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듭나는 내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 2) **만남**



김이분 집사
중구·용산교구

설화(雪花)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 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빛나게 아름답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기도해 봅니다

- 제주 어느 골목길에 피어난 이름 모를 설화를 보며



사진·글 이미혜 권사 _ 영락포토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출발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맡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설립된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지난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 것이다. 1939년 신의주 보린원으로 시작된 복지사업은 지난 81년 동안 아동복지, 노인복지, 모자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지역사회복지 이용시설인 복지관은 재단으로서도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사업이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다. 필자는 그동안 영락경로원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맡아 왔는데 이번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하면서 새로운 분야에서 새롭게 업무를 보게 되었다. 어깨가 무겁지만, 영락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복지관사업 운영인 만큼 주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권기용 안수집사
강동·송파교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관장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은 울창한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효창공원 후문 쪽 효창원로93길에 있다. 2009년 9월에 설립된 이곳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참여 확대와 완전한 사회통합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기관이 지향하는 첫째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복지실천, 둘째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의 접근 역량 강화, 셋째는 내실 있는 관리 운영이다. 이곳에서는 가족문화사업, 지역사회지원, 직업지원, 기능향상, 상담 및 사례관리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장애인의 자립과 여가를 지원하는 거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단순한 돌봄에서 그치지 않고 재활 훈련을 실행해 온 지 3년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뇌병변장애인 거점 복지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용산구, 중구, 종로구의 뇌병변장애인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장애인의 발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실과 직업훈련실, 정보화 교실, 체력단련실 그리고 다양한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 40여 명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 기능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



개관 11주년기념 나눔행사를 마치고

인원 약 270명으로 한 해 누적 인원은 80,000여 명에 이른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제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장애인들이 마음껏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지금도 많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영락에 하나님께서는 왜 장애인복지관을 맡기셨을까? 아직도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 이분들의 손을 잡아 주고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어느 복지기관의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슬로건처럼 사랑하는 마음만 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복지관 운영은 재단과 직원으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번

용산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자, 후원자 또는 장애인 옹호 활동가로 연계되어 우리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복지관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복지관으로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 부르심 중 하나의 현장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려고 한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들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성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바란다. **만남**

예방접종과 면역

예방접종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미생물(세균,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제거하거나 약하게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주사, 경구복용)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개개인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집단이 면역력을 갖게 해서 질환의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염성 질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의 효시는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중국에서 시행되었던 인두종법(人痘種法)입니다. 이는 경증의 천연두 환자에게서 고름을 채취하여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해서 천연두를 가볍게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접종받은 사람이 중증 환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천연두 자체를 더욱 전파해서 주위에 만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Jenner: 1749~1823)가 발견했습니다. 우두(牛痘)에 감염되었던 사람은 천연두(天然痘)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8세 건강한 어린이에게 우두를 접종하여 천연두가 예방되는 것을 확인했고, 1798년에 종두법을 발표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인체에 면역항원을 투여해 면역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의 면역기전은 그림과 같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만든 면역항원을 인체에 투여하면 항원표식세포가 인식하여 면역항원의 유전정보를 T세포에 전달합니다. 면역항원의 유전정보를 인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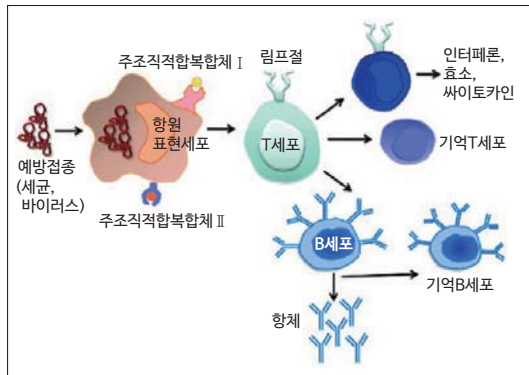


그림. 예방접종의 면역학적 기전

T세포는 ① 염증물질을 분비해서 면역항원을 처리하려 하고 ② 기억T세포에 유전정보를 보내서 재침입에 대비하여 ③ B세포에게 면역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라는 정보를 보냅니다. T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은 B세포는 ① 면역항원을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고 ② 재침입 시에 신속하게 항체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억B세포에게 면역항원 정보를 보내서 특이 기억B세포를 만듭니다. 이러한 면역 과정을 통해서 미생물(세균과 바이러스)을 물리칠 수 있는 항체가 생성되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그 질병이 완벽하게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서 항체 생성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4가지 균주로 만들어집니다. 3~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독감예방접종 후에 항체 생성률

은 A형H1N1은 91.4%, A형H3N2는 72.3%, B형 Victoria는 70.0%, B형Yamagata는 72.5%로서 군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략 70~91% 정도입니다. 사회 대다수가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독감 예방률은 항체 생성률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둘째로, 나라와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콜레라 예방접종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려면 황열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COVID-19)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방효과가 있더라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접종은 인체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은 미생물 독소를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은 예방접종으로 발생하는 원치 않는 모든 이상 증상이나 질병으로, 실제 백신이나 예방접종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반응과 우연한 시간적 일치로 인한 반응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경미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기 때문에 드물게는 중증 이상 반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접종 주사를 맞은 부위에 발적, 부종, 통증 등이 나타나는 국소 반응과 발열, 근육통, 두통, 무력감, 발진, 관절통, 구토, 과민성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아나필락시스, 경련, 뇌병증, 길랑-바레증후군, 혈소판감소증, 말초신경증, 화농성림프절염, 골염 등과 같은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①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백신을 운반, 보관, 다루는 과정에서 적정 보관온도를 벗어나거나 유효

기간을 지난 백신을 사용한 경우 ③ 권장 접종 용량이나 혹은 스케줄(횟수)을 다르게 접종한 경우, ④ 접종 과정에서 무균기술을 잘못 사용하거나, 의도치 않은 다른 백신을 접종한 경우 ⑤ 접종자의 백신에 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야기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38도 이상의 열, 구토·설사, 경련, 급성 질환에 걸렸을 때,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을 때, 면역결핍·암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수혈 받고 난 후, 이전 예방접종에 이상 반응이 있었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일 때는 생백신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사이트를 만들어서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성인과 노인 예방접종에 대한 지침과 정보, 그리고 여러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방문하여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료시스템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정상 회복되도록 치료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의술입니다. 올바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



임대현 집사
성남·분당교구
인하대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름없는 수고와 넘치는 은혜



주님의 날 하루가 세상의 날들보다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섬기는 자원봉사부 차장으로 2년을 마무리하며, 봉사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필요한 곳에 우선하는 자세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원봉사부에서 봉사하게 된 계기는 남한산성에서 뵈었던 한경직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청년부 소속이었던 저는 당시 한 목사님이 직접 과수묘목을 손질하시는 모습을 보며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하기봉사를 통해 기쁨과 은혜를 체험했고, 봉사부장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청년회 하기봉사에 참여하여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한여름 땀방울이 은혜의 기쁨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자원봉사부 차장으로 섬기며 교회의 봉사 자리가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봉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분 한분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이 지면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노란 조끼에 경광봉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안내하시는 교통봉사,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하시는 분들로 인해 놀란 가슴 진정시키면서도 미소 지으며 안내하시는 봉사자의 수고로 교회 주변의 무사고 기록을 세웁니다. 퇴계로 방면 주차장 입구와 지하 주차장에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종일토록 교회 주변에서 바쁜 손짓으로 수고하시며 기쁨의 단을 거두시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집계를 들고 교회 주변을 돌며 쓰



레기를 주워서 어느덧 불룩하게 가득 찬 쓰레기봉투를 들고 돌아오시는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수고의 기쁨이 넘칩니다. 봉사의 열정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하는 봉사자를 비롯하여 안내에 따라 줄 서서 질서를 지키는 성도들, 분주한 걸음 중에도 양보하여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성도들 모두 남다른 봉사의 기쁨을 주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멋진 유니폼을 입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장소나 행사를 묻는 성도들께 친절히 설명하는 안내봉사자들은 따스함으로 교회를 빛나게 합니다. 분실 물품들을 보관하며 잃어버린 물품을 찾으러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분실물센터에서 대기하는 봉사자도 있으니 혹시나 소중한 물품을 잃어버린 분들은 언제든지 분실물센터 문을 두드려주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또 다른 봉사자가 있습니다. 본당 난간과 베다니홀 난간은 언제나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평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본당과 베다니홀 난간 등을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으시며 땀 흘려 수고하시는 손길들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열 측정 봉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체온계를 들고 교회 정문과 남문, 그리고 백병원 입구와 주차장 입구에서 자원봉사자와 근로 청년들이 철저한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부의 주일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경에 일정이 끝납니다. 지난 2년간 오계환 부장 장로님과 5명의 차장 집사님, 말없이 수고하시는 박순복 지도권사님, 팀장님들과 자원봉사부 임원, 봉사자 한분 한분의 수고와 기쁨이 우리 교회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은혜가 너무도 큼니다. 커다란 기쁨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만남**



이성환 안수집사
고양·파주교구
(2020년도 자원봉사부 차장)

효(孝)가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한 것이니라(딤후 5:4)

성경에는 불효에 관해 많이 언급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잠 20:20),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 30:17) 등 불효에 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공자는 “세상에 오형(五刑)의 종류가 삼천 가지가 되는데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 했습니다.

이 시대에 부모공경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거쳐 급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자녀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됨을 의미합니

다. 효가 더욱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해줍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자녀는 그 이름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를 정의한다면 부자자효(父慈子孝)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애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양방향의 효를 이야기합니다.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채워드리고 정성껏 섬기며 순종하며 받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프실 때는 정성껏 간병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애도하며 엄숙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적었거나 의롭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에 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고려 말에 발간된 『효행록』에는 불의한 부모일지라도 효도하라는 효행을 담고 있습니다. 효행자

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섬겼고 굳은 의지로 부모를 지켰으며 선함을 끝까지 추구하여 관계의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 생활은 물론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가족 간에 신앙을 돈독하게 하여 신앙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하며 자녀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도록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신 11:18~20)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운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공경을 명령받습니다. 십계명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에 있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 또한 부모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자녀가 함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공감대가 넓어집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과 봉사를 하며 성도와 교제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는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비대면의 환경에서 세대 간의 소통을 공유하며 깊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 간의 믿음 전수는 유산이 되어 미래 한국 교회가 나아가 할 방향에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만남**



이현용·문호선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한국교회교육문화연구소

나의 생활을 찬양으로



네가 찬양하는 목소리가 참 좋으니

1985년 8월 어느 주일, 영아부 시절부터 으레 그 래왔듯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 옆에 앉아계시던 어느 중등부 교사가 오셔서 “네가 찬양하는 목소리가 참 좋으니 성가대를 하면 좋겠다. 토요일 성가대 연습에 와서 오디션을 받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열떨결에 토요일 연습에 가서 오디션 받고 중등부 1학년 성가대에 입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찬양으로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중등부, 고등부를 성가대로 봉사하며 지나는 동안 드렸던 많은 찬양의 가사들은 사춘기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젊고 열정 넘치는 지휘자·반주자 선생님, 좋은 선·후배, 친한 동기들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찬양대와는 다른 방법, 그러나 똑같은 찬양

중·고등부 시절 동시대의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두란노 ‘경배와 찬양’으로 대표되는 열린 예배는 일종의 영적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 어른들이 완고하여 거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치기 어린 판단으로 반항심에 몇 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사이에 직장 생활하고, 대학도 다니고, 군대도 다녀왔지요.

군을 전역하고 뭘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영락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인 손에 이끌려 군부대 선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부 찬양선교부에서 보컬로 7년 가까이 활동했습니다. 찬양대의 합창과는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복음성가들에 내 영혼이 크게 감동했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며 갈급한 영혼을 적시며 믿음의 군사로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군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찬양팀에서 워십 댄스를 맡았던 한 자매를 만났고, 지금도 제 옆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영원한 갈보리로

30대 초반 이후로 찬양팀도 내려놓고 잠시 찬양과 거리를 두던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게 되어 아내를 무척 힘들게 했던 무능한 가장이었지

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인 가장입니다.

당시 지인의 소개로 지금까지와 다른, 완전히 생소한 분야의 일을 시작했고, 몇 년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면서 찬양과 멀어짐으로 느끼는 허전함과 갈급함이 커질수록 예배드릴 때마다 들려오는 찬양대의 찬양들이 영혼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감동을 직접 느끼고 싶다는 마음에 찬양대로 섬기기로 결심하고 우리 교회의 여러 찬양대 중에 어느 찬양대에서 섬길까 고민하던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A.크라우치 목사님의 ‘나의 찬미’(My Tribute)라는 찬양곡 번역 중에 “주여, 나를 영원한 갈보리로 인도하소서”라는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2013년 2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갈보리찬양대’ 연습실 문을 두드렸지요.

하지만, 잦은 주일 근무와 주말을 불문하고 밥 먹듯 생기는 야근 등으로 인해 예배에 찬양대로서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생활이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대원들의 믿음과 열심에 누가 되는 것 같아서 2014년말 찬양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있다가 이제야 돌아왔어!

2년 넘게 찬양대를 떠나 있었지만, 함께 찬양하던 형님들이 주일에 가끔 얼굴 마주칠 때마다 ‘다시 갈보리로 돌아오라’며 함께 찬양하기를 권면하시던 말씀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찬양대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어?”라며 재촉하는 아내의 말에 못 이기는 척 2017년 가을에 다시 재입대를 결심했습니다.

재입대 오디션 자리에서 저를 반기시던 지휘자 박신화 장로님의 첫 말씀이 “어디 있다가 이제야 돌아왔어!”였습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을 찬양

대로 섬기다 내려놓은 지 2년 반 넘게 흘렀는데 그래도 기억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던 그 말씀에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직장으로 이직하도록 역사하셨기에 생업의 염려 내려놓고 갈보리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예배드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지금도 찬양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대로 섬기면서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큰 딸을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와 같은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호홉하게 할 찬양을 멈추지 않게

어렵쑤한 기억에 코흘리개 시절 처음 배운 노래가 ‘동방 박사 세 사람’이었고, 학창 시절 찬양 소리를 곱게 여기신 주일학교 교사의 권유로 찬양대를 시작하면서 찬양과 예배가 내 삶으로 다가왔으며, 이유 없는 반향으로 주님을 멀리하다 돌아왔을 때 찬양으로 군인들에게 주님의 구원 사역을 전했고, 지금도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저 저란 사람에게 찬양은 숨 쉴 수 있게 하는 공기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제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으나, 마음속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어느 때나 어디든지 내 육신을 호홉하게 하는 공기처럼, 내 영혼을 호홉하게 할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만남**



김현성 집사
인천교구
갈보리찬양대

호산나와 함께하신 은혜

장세완 장로 _ 동대문·중랑교구, 호산나찬양대 지휘자

55년의 역사를 간직한 호산나찬양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쓸 수 있을까. 무엇을 쓰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던 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펜을 들었다.

호산나의 시작: 젊은이의 모임터

1965년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하며 신도가 급증했다. 예배의 증설이 필요했고, 새로운 예배를 위한 성가대도 필요했다. 당시 본 예배 성가대인 시온성가대원 중 청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가대가 만들어졌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청년 성가대에 ‘호산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며

그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백광영, 한영상 장로님을 비롯한 술한 영락의 젊은 일꾼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정과 패기로 호산나를 섬겼다. 젊음의 시절을 함께하며 찬양을 통한 선교와 봉사의 지경을 넓혀왔다.

젊은이들의 커다란 공동체로 발전한 호산나는 1975년을 전후로 김지영 안수집사님을 비롯하여 차재능, 김지언 장로님 등이 참여하며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나님은 호산나에 미래를 준비시키셨다.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한때 젊은 청년들이 모여 놀기만 한다는 오해와 편견 속에 ‘놀산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호산나인들은 그런 별명조차 젊음의 상징처럼 여기며 더욱 끈끈한 결속을 이루어 봉사하며, 그 시대의 신앙 정신과 열정을 불태우며 성장했다. 이 시절 만들어진 행사가 순회 연주이고 이는 오늘날 전국 각지뿐 아니라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며 찬양하는 호산나의 귀한 사역이 되었다.

나와 호산나

6살 때부터 영락의 성가대로 자란 나는 고등부 성가대 시절 호산나의 찬양을 듣고 완전히 매료



1972년 7월에 열렸던 제2회 호산나음악회. 당시 지휘를 맡았던 윤학원 장로의 모습이 보인다



2019년 여름 일본 순회 연주를 펼친 장세완 지휘자와 호산나 대원들

되어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하겠다는 꿈을 가졌다. 당시에는 본당에서 고등부 예배를 드렸기에 자연스레 어른 성가대의 찬양을 접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성악을 전공하며 꿈의 성가대인 호산나 대원이 되었다. 이때 함께 찬양하던 친구들이 평생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음은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임을 고백한다. 돌이켜보면 지금 나의 일을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산나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

되돌아보면, 나의 호산나 시절은 짧았지만 내 삶의 가장 커다란 자산이 되고 내 갈 길을 준비하신 은혜 그 자체의 시간이었다. 젊은 시절의 방향은 일반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교회 어른(지도자)들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이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영적 사춘기’라 할까? 젊은 시기에 느낄 수 있는 회의감과 신앙에 대한 부정적 생각도

가졌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특히 호산나 안에서 찬양하며 극복하고 헤쳐 나올 수 있음이었다. 그것은 오직 은혜이고 내 삶에 가장 큰 감사이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1994년 유학을 마치고 자연스레 내 교회인 영락의 뜰에 들어선 어느 날 우연히 행정처장으로 섬기고 계시던 친구 아버님을 뵙게 되었다. 장로님은 교회 지휘자가 필요하니 이력서를 내라 하셨다. 당시 영락 교회 지휘자는 내게 있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였다. 내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했고 사실 그랬다. 윤학원 선생님, 고 박영근 선생님처럼 이름만 들어도 꿈 같은 어른들이었다. 그런데도 내게 기회가 주어졌고 갈릴리성가대의 지휘자로 섬김이 시작되었다. 1996년 호산나에 여러 사정이 생기며 나는 호산나성가대의 지휘자로 능력 밖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경직 목사님(사진 가운데)이 계신 남한산성 우거처에서 열렸던 1994년 겨울음악학교. 지난 1965년 새롭게 청년성가대가 출범하자 한 목사님은 '호산나'라는 이름을 직접 붙여주셨다

나보다 앞서 나의 약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호산나를 지휘하며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자연스레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고 싶은, 혹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내 행동보다 더 먼저 이뤄지는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음악성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천재 같은 음악 전공(성악, 작곡, 기악, 국악에 이르기까지) 친구들이 매년 들어오고, “어떤 재주가 필요합니다”하면 이미 빼어난 재주를 갖춘 대원이 눈앞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젊은 대원들이 해외를 경험하며 찬양하게 해주세요”하면 그 필요에 따른 모든 것들을 주심을 경험했다. ‘여호와 이레’를 셀 수 없을 만큼 경험했다

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또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젊은이들의 변화된 가치관이 그렇고, 더욱이 코로나19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삶을 바꾸려 한다. 이 와중에 호산나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모이기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지극히 실용화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내게도 그러셨듯이 분명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호산나를 들어 쓰실 것임을 믿는다. 또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묘하신 계획과 호산나를 통해 이루시는 귀한 사랑의 사역들을 기대한다.

나의 인생 전부라 할 수 있는 호산나를 사랑한다. 우리를 한곳으로 모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세계로 흩어져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만나게 되는 호산나 출신의 많은 선후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이적인 일들과 보잘것없는 나조차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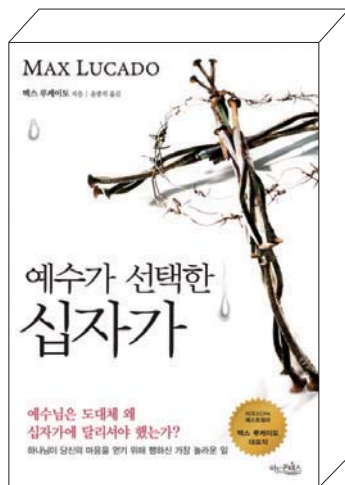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향한 온전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확신하며, 십자가의 사랑 고백을 일상의 언어로 진솔하게 표현한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동화책 『너는 특별하단다』로 익히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3대 명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수님처럼』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특히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우리에게 일상에 스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증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증표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최고 증표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 없다.” 이처럼 ‘예수가 선택한 끔찍한 처형 도구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로 큰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십자가 선물은 근사한 포장기 아닌 수난을 둘러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너를 위한 일이다’ ‘너의 어두운 면을 담당하겠다’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너의 잘못을 용서한다’ ‘너의 아픔을 다 이해한다’ ‘너를 구원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라는 책의 묵차는 모두 ‘너를 위해 내가



맥스 루케이도 지음 / 윤종석 옮김 / 아드폰테스 / 272쪽

한 일’이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는 세 개의 언어 즉 히브리어(종교 언어), 라틴어(법률과 정치 언어), 헬라어(문화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의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는 왕’이라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의 사랑 고백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모든 순간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 앞에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고백에 침묵이 아닌 응답의 열매를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만남**



김정희 목사
성남·분당교구
예배위원회, 음악부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2020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2020 북적북적 공모전 시상식에서 김운성 목사와 최우수상 수상자들

제4회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이 한경직 목사 20주기를 맞아 ‘사랑 실천으로 응답하신 한경직 목사님을 회상하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소속 중·고등학생(청소년부)과 대학생, 청·장년 성도(일반부), 그리고 교회 산하 7개 기독교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한 달의 응모기간을 거쳐 독서감상문과 수필, 회화 및 만화(웹툰) 부문에서 총 338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홍보출판부와 영락미술인협회 소속 5명의 심사위원단이 11월 1일부터 14일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7개 기독교학교 수상작 포함 총 57편(최우수상 11편, 우수상 19편, 장려상 2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교회 수상자 명단은 우측표 참조)**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상황에

도 불구하고 지난 행사에 비해 영락 성도들의 참여가 대폭 증가했고, 응모작들의 수준도 높았습니다. 특히 독서감상문 부문에선 단순히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적 경험과 비전을 녹여낸 작품이 많았습니다. 일반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두 작품 중 한 편은 글 속에 신앙공동체를 향한 장년 성도의 깊은 사랑이 묻어있고, 다른 한 편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고민을 담아냈습니다.

‘2020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시상식은 지난 11월 22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20 한경직 목사 기념상’ 시상식과 함께 열렸으며, 11월 29일(주일)부터 12월 6일(주일)까지 베다니광장에서는 수상작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편 7개 기독교학교 수상작들의 시상식은 각 학교 별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멍 난 복음, 완전하신 주님

지난 2월, 대학부에서 축복을 받으며 군대에 입대했다. 군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책을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과 함께 신앙 서적을 많이 읽게 되었다. 부대 도서관에 꽂혀있던 『구멍 난 복음』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 이번 북적북적 행사를 통해 좋았던 책을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했다.

저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전개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자신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진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복음의 지



리처드 스텐스 저 / 홍종락 역
홍성사刊 / 2010

■ 영락교회 수상작 (일반부 및 청소년)

	이름	부서	응모부문	제목
최우수상	이기훈	대학부	독서감상문	구멍 난 복음
	김영미	장년부	독서감상문	보린의 사랑은 강물처럼
	김경민	중등부	회화	사명,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빅 피쳐
우수상	김현정	장년부	독서감상문	오래된 소원
	안세진	청년부	독서감상문	나의 감사
	박복희	장년부	독서감상문	구멍 난 복음
	김의준	중등부	만화(웹툰)	사명,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빅 피쳐
장려상	김지영	장년부	독서감상문	나의 감사
	김윤아	청년부	독서감상문	나의 감사
	조명철	장년부	독서감상문	구멍 난 복음
	김인희	장년부	수필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그 시절
	조성환	중등부	감상문	사명,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빅 피쳐

경을 넓히기를 촉구하고 있다. 책의 제목이 ‘구명난 복음’인 까닭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구명을 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하는 복음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있지만, 이웃사랑이 없는 반쪽짜리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 가치를 좇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주변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그 수준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세 가지 삶을 뛰어넘는 삶이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이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수준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책이었다.

책의 저자는 고급 식기 회사 레녹스의 최고경영자 리처드 스텐스다. 그는 한 통의 구인 전화를 받는다. 그것은 월드비전 회장을 맡아달라는 전화였다. 24살에 그가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레녹스의 회장이 되기까지, 그는 직장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 뜻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큰 질문 하나를 던지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월드비전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괴로워했지만, 아내와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그 문제를 이

겨냈다. 마침내 그는 월드비전의 요청을 수락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억지로 회사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었다.

리처드는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나누고 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가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리처드에게 상황이나 재물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기를 바라셨다. 불우한 가정에서 그를 탁월한 사람으로 빛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거부하고자 했던 그의 교만함을 꺾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느껴졌다.

월드비전 활동으로 세계 각국에서 만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나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고자 하셨다. 전 세계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 등 여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소중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것을 수치화할 뿐, 그 안에서의 한 사람의 이야기는 묵살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통계 속에 감춰진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가난’이다. 많은 질병으로 죽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몇천 원의 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한다. 그는 이런 상황을 열거하며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 물었다. 교회의 재정이 교회를 더 크게 짓거나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실태를 꼬집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의 지경을 넓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은 죽어간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난은 단지 재물의 나눔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의 나눔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그는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치유하기 위해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리처드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느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군대에서 수많은 병사 중 한 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복음을 누리고 주위에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리처드는 월드비전에 기부하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고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물어보는 것 같았다. 리처드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총리가 됐다는 성공 신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야기로 보게 되었다.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

나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몇 벌 없던 옷가지들까지도 기부하시며 청빈한 삶을 사신 당신을 나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영락교회를 세우고, 학원선교를 펼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종. 나는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만 했을 뿐이었다. 당신께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도리어 무관심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청빈과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청빈과 헌신이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코로나로 인해 여유를 잃은 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반성할 것은 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낙담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광대한 것이다. 단순하게 사회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을 구해낼 부요함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 부요함은 오직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다.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열심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살리시기 편하시도록 나를 더욱 내어드려야겠다고 느꼈다. 나의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부요한 마음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겠다. **만남**



이기훈 성도
대학부 엘리야마을



한경직 목사의 눈물, 외다리 그 소녀

오랜 기간 내 영혼에 가장 강하게 박힌 TV 화면. 1982년 「8시에 만납시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토크쇼의 효시쯤 되는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성탄 특집에 출연하신 한경직 목사님께 김동건 아나운서가 물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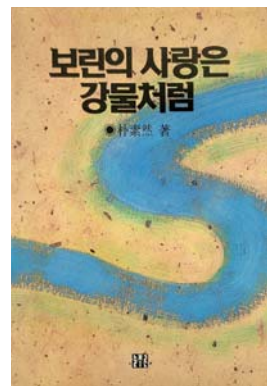
목사님께서는 답하셨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꽃은 그 자체 아름다움으로 그치지만 아름다운 인격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질문은 “목사님,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동안 정적이 일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잠시 후 천천히 말씀하셨다. “제가 일제 강점기에 신의주 제2교회에서 시무하며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고아 소녀를 맡아 기르면서 고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토막을 딛고 다녔지요. 그러다 1945년, 기다리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공산당의 핍박으로 상황이 더 위급해졌습니다. 제가 급히 남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아 몇 명이 남으로 넘어왔지만, 그 아이는 올 수가 없었지요. 전쟁도 겪었을 것이고 어려운 시간을 그 몸으로 어떻게 지냈을까 늘 그

립습니다. 가장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눈물은 내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새겨주었고 그 소녀가 누구였을까 늘 궁금했다.



박소연 저 / 서울 늘푸른刊 / 1990

“『보린의 사랑은 강물처럼』만 남았는데 괜찮으세요?” 한경직 기념도서관에서 나의 의향을 물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보린원은 내 마음에 가까운 곳이다. 오히려 설레면서 기다렸다. 며칠 후 택배로 받아든 책은 1990년에 간행된 것이었다. 30년 된 책은 책장을 넘기면 몇 페이지씩 툭툭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조심스럽게 읽었다.

책의 첫 부분부터 한경직 목사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그 소녀에 대한 나의 오랜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했다. 1938년 일제 강점기 신의주에서 영락보린원 태동이 된 복순이 이야기를 상세히 읽었다. 한경직 목사님과 신의주 제2교회는 병마와 가난으로 끔찍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녀의 삶을 돌보았다. 깊은 병으로 아버지를 잃은 복순이를 돌보기 시작하며 고아들을 품는 보린의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보린(保隣)의 뜻을 다시 찾

아본다. 이웃끼리 서로 돕고 돌보아 줘. 새롭다. 보린의 뜻. 그랬구나.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당연히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며 돕는 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영락 보린원(保隣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구나.

보린원 시작부터 함께 협력한 성도들의 실행력은 큰 도전이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선도적 사랑을 무조건 믿고 따르며 헌신한 교인들의 흔적이 가득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국민소득은 얼마였을까? 나라 잃은 하층민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실천을 가장 긴급하게 여겼다.

“목사님, 저도 할 일이 없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기부해야지요. 보린원은 우리 신의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고아원이고 이 아이들은 모두 우리 민족의 핏줄 아닙니까?”

1942년 일제에 의해 교회에서 쫓겨난 한 목사님은 보린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믿고 달려간다. 보린원 아이들을 위해 농사를 지어 먹여 살리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임하셨다.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 김세정 보모, 정용순 보모, 유의성 집사, 임병수 집사, 김이섭 집사, 정우균 장로, 김상익 장로, 우성세 집사 등 많은 분의 희생과 수고가 소개되었다. 한경직 목사님의 40대 초반 모습 묘사는 백세 소천하실 때까지 한결같았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언행이 완전히 일치하는 분.

“깡마른 체구이지만 키는 훤히했고, 혈색은 좋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준수한 품위가 넘쳐 있었다. 언제나 가벼운 미소를 띠고 누구를 만나든 먼저 공손히 인사했다. 또 설교는 대단했다. 부드럽

고 온유한 성품에서 어떻게 그렇게 박력 있고 거센 물결 같은 설교가 나올까 신기할 정도로 힘이 넘치는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 감격하게 했다.”

내가 경험한 한경직 목사님의 그 모습과 여전히 일치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신 모습. 우리 집 안방에는 성경 캘린더와 함께 한경직 목사님의 조그만 사진을 두었다. 가까운 믿음의 선진으로 날마다 기쁨, 기도, 감사로 살아낼 것을 격려하신다. 1948년 18세 소년으로 고향 평안남도 순천을 떠나 단신 월남하신 아버지는 오직 ‘베다니교회’로 향했다. 선천 신성학교 학생이었기에 교회에서 매우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했다. 어려운 시절 끊임없이 몰려드는 탈북인들을 품으신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은 내 삶에도 진하게 닿아있다. 우리 가족은 탈북 2세대와 3세대로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는다.

많은 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영락보린원은 세워졌고 유지되었다. 그중 여인의 몸이지만 엄마의 심정으로 한국전쟁 한복판에서 고아들을 지켜내신 김원자 원모가 가장 마음에 남는다. 지혜롭고 담대하셨다. 목사님과 교회가 피난을 떠난 후, 공산당이 점령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먹이기 위해 피를 말리는 지혜를 짜내었다. 9·28 서울 수복에 기뻐했으나 불과 석 달 후 다시 1·4후퇴를 겪으며 인천에서 제주까지 고아들을 지켜냈다. 하늘이 보내신 보린의 어머니. 그분은 모든 순간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며 결단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딸이셨다. 그분의 수고를 영원히 기억하실 분은 오직 하



나님. 이후 그분의 아픔을 어찌 다 표현할 것인가. 목숨이 천 개라도 보린원 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을 그 진심. 그러나 후일 평온을 되찾았을 때 ‘교단이 다르니 사임을 중용’하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한계도 적혀 있다.

고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어렵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사람의 삶이니 일상에서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었으리라. 갖가지 여러 상처와 서운함과 배신도 있었다.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지키신 하나님 사랑은 보린원을 통해 고아들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셨다. ‘누렇지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흘금거리던 모습은 구김살 없고 당당한 모습’으로 떠올랐다.

30년 된 이 귀한 책은 잊어서는 안 될 귀한 자료다. 내가 이 책을 읽는 도중에 믿음의 이웃들도 많이 읽었으면 싶었다. 특히 한국의 가난, 한국 전쟁에 처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월드비

전의 역사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멈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순종의 역사,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책이다.

다만 ‘계집아이들’, ‘사내아이들’이라는 옛날 표현들, ‘팔이 아프도록 아이를 때리며 훈계한’ 무지한 문화의 차이들은 세밀하고 진실한 보정이 필요하다. 개정증보판이 나오길 소원한다.

바쁜 회사 일로 숨 쉴 수 없는 위기의 순간, 나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디자인을 전공하여 ‘사회적 결정을 위한 회의, 공유된 정보로서 디자인’ 업무는 탄력 있게 잘했지만 어릴 적 마음대로 그렸던 자유로운 그림이 그리웠다. 그렇게 시작한 즐거운 그림그리기는 영혼의 위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춘기 아이들이 생각났다.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의 한 명만 있어도 온 집안이 조심조심한다. 그런데 사춘기 청소년이 여럿 있는 고아원은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이 들었다. 즉시 영락보린원에

전화를 했다. “김병삼 원장님, 중·고등학생들과 제가 그림 그릴 기회를 주세요. 그림이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림그리기가 필요한 세 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을 낼게요. 재료도 다 지원할게요. 직장 내 동호회 방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잘 가르쳐 볼게요.” 김 원장께서는 세 명이 아닌 네 명과 함께 회사 로비로 오셨다. 그날 이후 네 명의 아이들과 매주 목요일 밤이면 함께 저녁 먹고 그림 그리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목밤쿵작작>.

“저도 돕겠어요.” 홍대 미대 후배인 이정은과 김 인선도 참여했다. 목요일 밤마다 이 재료, 저 재료 써가며 즐겁게 하하 호호했던 시간들, KBS 시청자갤러리에서 전시도 함께했다. 그렇게 3년의 세월. 아이들이 대학 입시 체제로 들어가며 정리하는 2회 전시회는 성탄 무렵 우리 집에서 했고 그 흔적은 너무도 소중한 지울 수 없었다. 지금도 우리 집 벽은 <목밤쿵작작> 전시중이다.

당시에 비하면 지극히 풍요로운 현재의 대한민국. 내 손에 쥔 게 더 풍성해져도 이웃과 나눌 수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가난뱅이일 뿐이다. 한경직 목사님, 김치선 장로님, 김치복 장로님, 김상익 장로님... 교회 마당에서 뵈고 살던 어른들. 이제 예수님 집에서 보린원 이야기 나누시며 계실까요?

보린원에 얹힌 추억이 하나 더 있다. 대학부 2학년이었던 1978년 어느 토요일(정확한 날짜는 차범근 감독이 기억할 것이다) 친구들과 보린원에 간 날. 원장 김상익 장로님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이 가득하셨다. 내일이면 독일로 떠날 차범근 선수가 축구공 50개와 용달차 한가득 계란을 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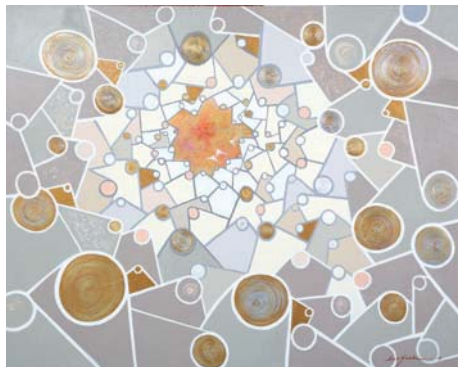
와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갔단다. 아이들이 꿈인가 생시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장로님도 한껏 기뻐하셨다. 국내에서 마지막 날 영락보린원 고아들과 축구를 하고 독일로 출국한 그 청년 차범근. 듣는 나도 기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다. 그 후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축복을 확인하는 마음이었다. 독일 생활을 마치고 귀국 후 그의 인터뷰, 계획에 관한 질문에 “저는 신앙인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교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린원을 떠나 성인이 된 나의 <목밤쿵작작> 청년들은 이제 예술가, 직장인, 말 조련사가 되기 위한 대학생이 되었다. 우리는 친한 친척같이 아직도 서로 보고 싶어 하는, 사이다 같은 사이다. 만나면 함께 전시회를 보곤 한다. 미술로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던 추억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 선물이다. 이번 성탄에는 여전히 전시 중인 전시장, 우리 집에서 다시 모일 것이다. **만남**



김영미 권사
고양·파주교구

빛으로 (근원 - 하모니)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불안과 외로움에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깨어날 때 자연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

내가 살아있고 숨 쉬고 있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소망을 갖는다.

근원이라는 주제를 갖고 예찬하는 회화적인 표현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이 만드신 우주의 세계이다. 근원은 빛으로 탄생한 생명의 최소단위이며, 근원은 멈추어 있는 듯 움직이고, 동일한 형상을 가졌으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상징된다.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한다. 그 과정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광채가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빛나게 해준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은 성숙의 과정인 것이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할 뿐이다. **만남**

교회소식

news letter

지금껏 걸어온 길, 앞으로 가야할 길 - 교회창립 75주년 행사

- 12월 6일 장로·집사 임직예식, 11월 29일 창립75주년기념 음악예배



교회창립 75주년을 맞아 창립 이후 지금껏 영락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장로·집사 임직예식, 창립75주년기념 음악예배 등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을 맞은 지난해 12월 6일 김운성 목사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본문 삼아 ‘이런 교회 되게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지니고 성령의 위로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공동체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제48회 장로·제49회 집사 임직예식이 있었다. 당회장 김운성 목사의 인도로 열린 임직예식은 중부시찰장 권호섭 목사(한맹교회)의 기도와 서울노회 부노회장 정영태 목사(신당중앙교회)가 ‘임직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고전 4:1~2)’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임직을 받은 장로 8명과 안수집사 20명은 충성된 청지기로 소임을 다할 것을 성도들 앞에서 서약했다. 당회장의 안수기도와 임직 선포 후 임직자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차영균 장로는 “부르신 이에게 순종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임직예식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교회창립 75주년 기념주일에 앞서 지난 11월 29일(주일) 오후 5시에는 창립75주년기념 음악예배가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본당에서 열렸다. 최상규 안수집사의 지휘로 첫 곡 ‘교회의 참된 터’를 시작으로 ‘영락찬가’, ‘다 찬양하여라’ 등의 찬양곡을 예배 중간 중간 연주하며 창립 75주년을 기념했고, 두 편의 특별영상(교회가 걸어온 길, 교회가 가야할 길)을 통해 참석자들 모두 75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교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음악예배에선 최근 일산 승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박규성 목사가 이임 설교를 전했다. 한편 창립75주년기념 음악예배 직후에는 베다니광장에서 ‘2020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다. 임마누엘찬양대와 차임벨 캐럴 협연으로 성탄 찬양이 은은히 울려 퍼진 가운데 진행된 점등식에서 성도들은 평화의 성탄절을 기대하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임직자 명단 70면》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유승헌·원종석 기자

2021 향존직 선거 … 장로 6명, 안수집사 19명 피택

2021 향존직 선거가 지난 9월 27일(주일)부터 15일간의 후보추천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22일과 11월 29일(이상 주일) 두 차례의 투표를 거쳐 장로 6명, 안수집사 19명을 피택했고, 12월 2일(수) 피택자 감사기도회를 가짐으로써 2개월에 걸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향존직 선거는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상황과 예전과 달라진 선거방식 속에서도 당회와 선거집행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 가운데 선거의 모든 과정을 순조로이 마칠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제직들이 선거관리위원과 봉사자로 동역해 원활한 선거진행을 도왔으며,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향한 깊은 사

랑을 나타냈다.

이번 선거는 일정과 진행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① 선거 전체 일정이 4개월(9월~이듬해 1월)에서 2개월(9월~11월)로 2개월 이상 단축 ② 투표 시기도 이듬해 1월에서 당해 11월로 변경 ③ IT미디어부와 협력하여 투표자 교적 확인에 QR코드 도입 및 후보자 서류제출 시 선거집행위원회 공식 이메일이 활용된 점이 이번 선거에서 도입된 큰 변화 중 하나이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 11월 22일과 29일 양일간 투표장소를 기존 봉사관에서 50주년 기념관 1층으로 변경한 가운데 진행했다.

제공 선거집행위원회

2021 향존직 선거 피택자

장	로	김병욱	김태영	오동희	이인수	공수일	조병준
안수집사		김만석	박승택	박태용	김국진	김관용	김준섭
		최정국	김용범	곽경호	남정웅	문창웅	김성주
		이정수	강명구	김기선	최인용	조두진	안창진
							송경훈

※ 선거집행위원회는 2022 향존직 선거부터 후보자의 실일조 현금 내역은 기명(記名)의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다.

서무부, 2020년도 재물등록대장총람 발간



서무부(2020년도 부장 신은정 장로)는 교회창립 75주년을 맞아 11월 29일(주일) <재물등록대장총람>(전2권)을 발간했다.

서무부 실행위원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10월부터 <재물등록대장총람> 발간을 위한 데이터 재입력 작업과 교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간된 총람은 각 부서와 기관이 보유중인 비품 현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기존 교회 비품에 부착했던 흰색 등록 라벨은 노란색 라벨로 전면 교체됐다.

제공 서무부

사회봉사부, 성탄과 연말 맞아 사랑의 봉사 활동



사회봉사부(2020년도 부장 나선환 장로)는 성탄과 연말을 맞아 중구와 종로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따스한 나눔과 섬김의 손길을 전달했다. 12월 10일(화) 교회 마당에서는 사회봉사부 임원진과 중구청,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치 전달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사회봉사부가 불우이웃을 돕고자 매년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해 펼치는 정기적 활동으로, 이번에 전달된 650가구분의 김치는 중구 11개동, 종로구 5개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한편 사회봉사부는 노숙인들과 보육시설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활동도 펼쳤다. 종로구 창신동 등대교회가 운영하는 노숙인 급식시설 2곳을 방문, 급식 봉사와 더불어 방한용품 및 코로나 19 개인방역용품을 전달했고, 보육시설인 강남드림빌을 방문해 급식 봉사와 함께 성탄 선물을 전달했다. 사회봉사부가 성탄과 연말을 맞아 펼치는 나눔의 봉사 활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탄 헌금을 통해 조성된 재정으로 진행된다.

제공 사회봉사부

2021년 교회달력 확 달라졌습니다

홍보출판부는 새해 교회표어인 '눈을 들어 발을 보라(요한복음 4:35)'를 테마로 2021년 새해 교회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월별 사진으로 2020년에 진행된 부활절 행사, 어린이날 공연, 구국기도회, 본당에서 열린 산상기도회 모습 등을 채택함으로써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사명을 지켜나간 영락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담았습니다. 새해 교회달력의 큰 변화는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판형 변경입니다. 또한 구김 방지를 위해 표지에 코팅 처리를 하는 등 세밀한 정성을 더했습니다.

새해 달력은 지난 12월 6일(주일)부터 각 구역별로 구역장 또는 구역봉사자 한 분이 대표 수령하여 배포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교회달력이 한 해 동안 영락의 각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그 쓰임이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달력 제작에 도움을 주신 교회 내 여러 봉사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형 집사 _ 홍보출판부 홍보분과위원장

이임교역자

목사



임평호 (2015)
영락사회복지재단
사랑부



이정훈 (2016)
설악산수양관



윤기철 (2018)
고양·파주교구
예배위원회



이동규 (2018)
동대문·종량교구
목양부



장윤재 (2018)
강남교구
제자양육훈련부



김학수 (2018)
북한선교부



심순종 (2018)
서대문·은평교구
IT미디어부



예진용 (2018)
성남·분당교구
목회행정



어정현 (2018)
성동·광진교구
상담부



서루디아 (2018)
영·유아 유치부

전도사



이영옥 (2011)
강동·송파교구
목양부



이성형 (2018)
중등부

※ 성명 옆 괄호는 본 교회 부임 연도
아래 기재 내용은 2020년도 담당교구 및 부서

은퇴항존직

장로



이창민



이상은



박성만



김정훈



김진성

안수집사



남영희



김지영



최성은



전성환



정남호



조은봉



고서규

※ 2020년 12월 27일 은퇴

장로 장립 및 집사 안수

제47회 장로(8명)



차영균



이창선



최성준



장세완



임우섭



안태운



양성환



강동호

제48회 안수집사(20명)



임종환



홍석훈



최은오



김혁태



황문선



김창섭



김승덕



김병기



민병준



이영화



이성두



김수홍



이동훈



김경호



소남호



송정석



오은택



최성문



박경수



김재연

※ 2020년 12월 6일 임직

1월 목회력

1일(금)	신년예배
3일(주일)	주일예배 성찬(1~5부)
4일(월)~6일(수)	신년기도회
9일(토)	교육부 신년교사기도회
10일(주일)	고등부·대학부·청년부·자유인·국제예배 성찬, 권사 임직예배, 제직회
17일(주일)	여전도회 헌신예배, 심방준비회
24일(주일)	사회봉사주일

※ 1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장 레터

창세기 3장 6~7절을 보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아랫도리를 가렸습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 곧 자아 발견은 미완성인 자신의 무지(無知)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 의하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떠한 질문에도 완전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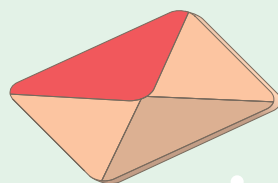
오늘날 인간이 누리는 과학 문명은 '텅 빈 빌딩'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문명의 패권주의에 예속되어 타자를 자기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자가 자기의 뜻대로 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을 거들떠보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근본적으로 통회하는 사람만을 아끼셔서 인생의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더진 농기구가 대장

간 불에 달구어져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날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다듬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속 문명이라는 거짓된 유일신화(唯一神化)를 퇴출하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사유의 원형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정비되지 않는 인생은 신분에 구애 없이 쓸모없는 폐품입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해답은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할 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 아침을 우리에게 또다시 주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년 1월 『만남』은 정비된 삶의 방향을 다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만남』을 애독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듬뿍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장 이동훈



2021년 1월호 통권 563호

발행 2021. 1.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혁태 나광호 우대권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 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숨은 그림 찾기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낱말풀이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빨간 네모 안에 들어가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각 줄의 단어를 맞추는 후 전체 문장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마음의 영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책이나 컴퓨터에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는 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곧	
아침부터 저녁까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하나님의 약속의 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여호와, 그리스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직업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곳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쓴 맛이 나는 식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여름과 겨울 사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못 박히심 기독교의 상징
뱀으로 변한 모세의 이것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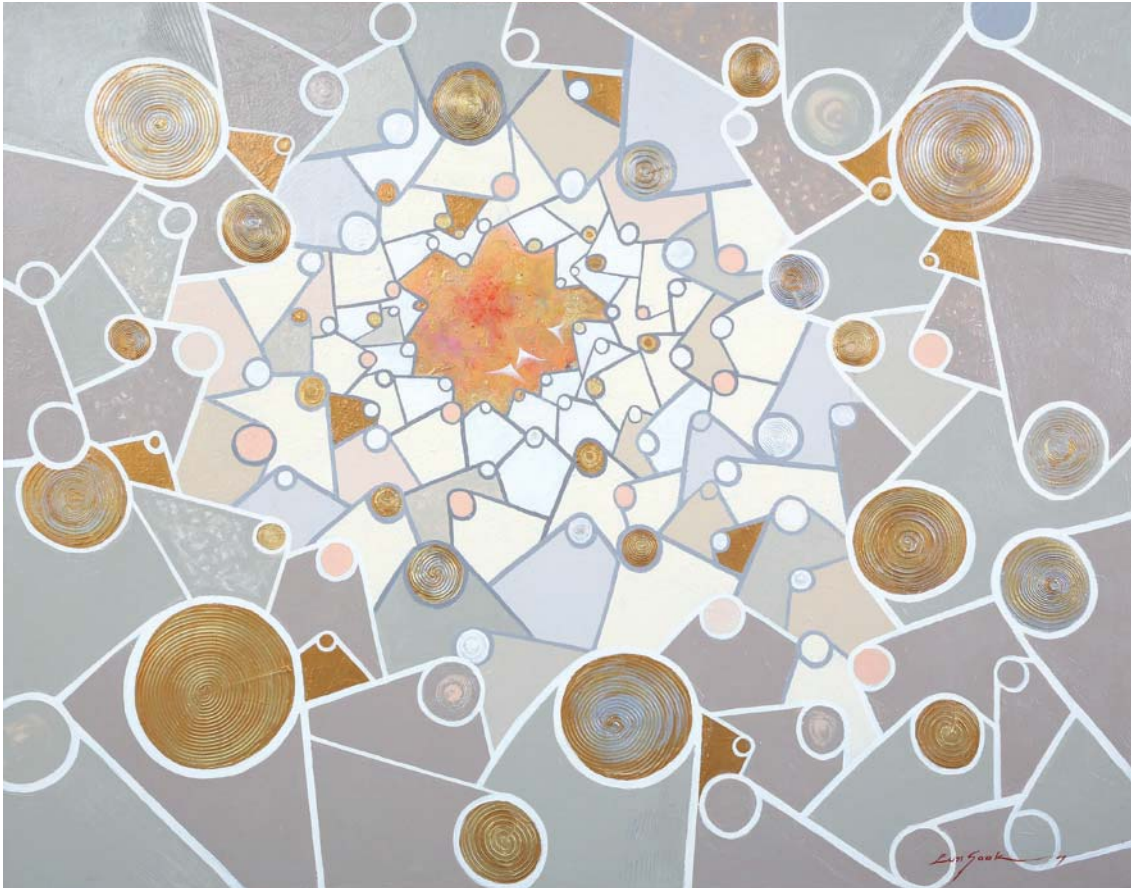
[에베소서 6:17]

그동안 <윤진경의 함께해 보아요>를 사랑해주신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를 끝으로 3년간의 연재를 마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 가득한 2021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락화랑

빛으로 (근원-하모니)



박은숙, Mixed Media on Canvas, 162×130.3cm, 2017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3~5)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9)